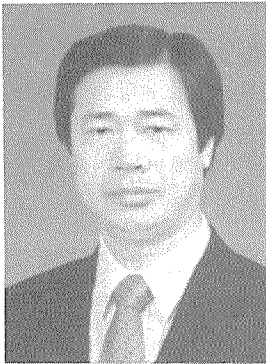


# 중동의 팽창과 중앙아시아의 석유산업



沈義燮  
(명지대 경제학과교수)

## I. 머리말

인간생활에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위에 합리성을 부여하면서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듯이 국제관계에서도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위하여 이합집산이 끊이지 않는다. 때로는 동맹으로, 때로

는 전쟁도 불사하면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듯이 오직 실리를 좇는 것이 국제관계이다.

중세기부터 시작된 십자군전쟁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것이 중동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와중에서도 중동내의 동지국가들간의 갈등은 수시로 전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석유자원의 확보와 관련하여 걸프전쟁이 일어났으므로 걸프전쟁은 20세기 후반에 일어난 최대의 국제자원전쟁이라고도 일컬어지고 있다. 특히 현대 문명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석유의 확보야말로 안전보장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석유 안전보장이 지역안전보장 나아가 국제안전보장까지 연결되고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경제제재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에너지공급을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걸프전쟁 이후 중동문제는 아랍·이스라엘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아랍국가간의 분쟁들이 추가되고 있다.

한편 구소련의 해체로 중앙아시아의 이슬람국가들이 독립하면서 중동이슬람 국가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한결같이 석유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슬람권에 속하기 때문에 중동은 팽창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중동의 팽창을 살펴본 뒤에 중앙아시아의 석유산업, 그리고 중앙아시아와 중동과의 석유협력문제 등을 차례로 살펴 보고자 한다.

## II. 중동의 변화와 팽창

### 1. 중동정세의 변화

걸프전과 더불어 아랍세계는 2개로 분열되었다. 아랍연맹 회원국 21개국중에서 12개국이 반이라크 국가였다. 전쟁중에 있었던 이러한 아랍국가간의 반목과 분열은 전쟁후에도 일부지역에서는 국경분쟁이란 형태로 재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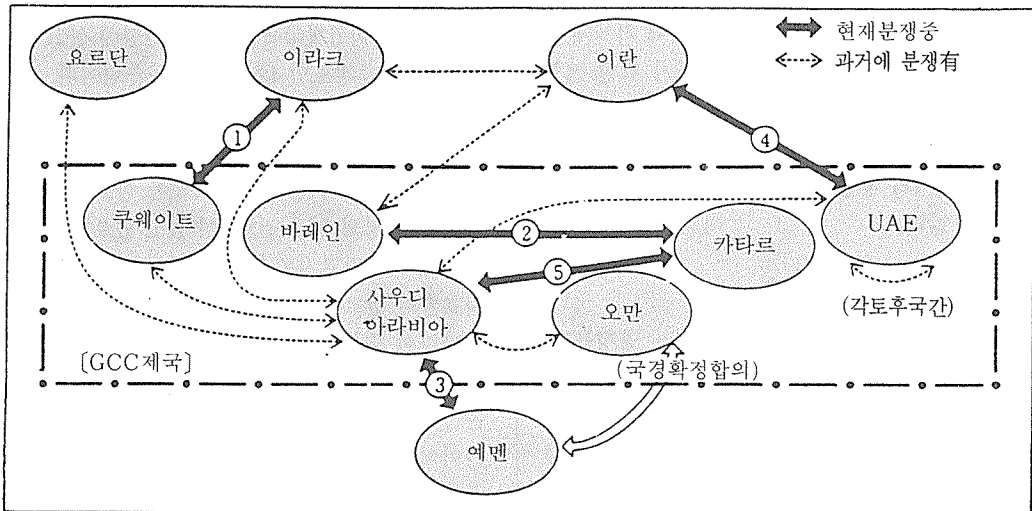
쿠웨이트와 이라크간의 걸프전이 석유자원을 둘러싸고 야기되었던 영토분쟁이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영토분쟁이 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만은 없다.

현재 걸프지역에 발생하고 있는 국경분쟁은 영국의 식민지통치시대에 영국인들이 편의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다. 그런데 이 국경지역에서 석유자원이 발견되면서 한치의 땅도 양보할수 없다는 국가이기주의에 의하여 분쟁이 야기되고 있다.

최근에 발생한 국경분쟁만 보아도 바레인-카타르간(1991.8), 사우디-예멘간(1992.3), 이란-UAE간(1992.4), 사우디-카타르간(1992.8) 등 여러국가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그림1참조).

이를 좀더 살펴보면 이란과 UAE간에는 Abu Musa 섬과 大, 小 Tonb 섬에 관한 분쟁이 있다. 당초에는 당사국간의 분쟁이었지만 현재는 이란과 아랍국가

(그림1) 아라비아 반도지역의 최근 국경분쟁



번호	분쟁당사국	최근의 분쟁	현 장
①	이라크·쿠웨이트	1990. 8	UN에 의한 국경획정종료
②	바레인·카타르	1991. 8	사우디의 조정은 실패하였고 카타르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의향
③	사우디아라비아·예멘	1992. 3	양국간에 교섭계속중
④	이란·UAE	1992. 4	양국간의 교섭결렬(92年 9月)되고 양국비난합전으로,
⑤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1992. 9	양국비난합전중

들간의 분쟁으로 확대될 조짐이 보인다.

사우디와 카타르간의 국경분쟁은 기존의 국경협정(1965, 1974)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둘러싸고 발생한 것인데, 이는 카타르의 독자적인 행동의 제약이나 석유자원 확보를 위한 사우디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바레인과 카타르간의 분쟁은 카타르의 12해리 영해선포(1992. 4)와 관련하여 영유권 분쟁지역인 하와르섬, 디바르 및 자라다주에 대한 카타르의 영유권 선언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우디·예멘간의 국경분쟁은 국가자존심이 걸린 뿌리깊은 분쟁이다. 더구나 국경지역에서 석유자원의 발견이 잇달아 있게 되면서 자원확보와 지역패권 추구의 일환으로서 해결전망이 매우 흐린 분쟁이다.

이같은 인접국가간의 지역국경분쟁은 국경지대의 석유자원의 확보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며, 지역역학관계에서 비롯된 사례도 적지않다. 말하자면 이란의 이슬람혁명의 수출의도에 대한 공동대응(이란, UAE간)으로 볼수 있는 좋은 예이다.

그리고 걸프전 종전 이후에 아랍세계에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는 민주화 열풍에 대응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반체제운동에의 관심을 국경문제로 전환시키어 통치기반을 다지려는 의도일 수 있다. 특히 카타르에서의 국경분쟁은 이같은 사례로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

## 2. 중앙아시아 정세의 변화

걸프전이 끝난 중동의 변화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구소련의 해체이다. 소련붕괴후에 수립된 독립국가연합(CIS)이나 러시아 연방이 옛 소련과 같이 중동지역에서 주요국의 역할을 할수 없게 되었다.

소연방이 15개국으로 분리독립하게 되면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6개의 이슬람공화국들도 독립하게 되었다. 그 결과 소련의 중앙집권체제로부터는 벗어나게 되었다. 반대로 터키, 이란, 파키스탄과 같은 이슬람국가들과의 접촉이 더욱 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중동에서의 미소대립이라는 외적인 분쟁요인은 사라지게 만들었으나 새로운 분쟁요소를 발생시킨 것이다. 말하자면 터키와 이란같은

몇몇 중동국가들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있는 특이한 민족갈등이나 종교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 3. 이슬람의 부흥

CIS에서 이슬람국가로서는 키르기즈스탄(Kirgizstan), 타지크스탄(Tajikstan), 투르크메니스탄(Turkmenistan), 우즈베크스탄(Uzbekistan) 등 중앙아시아 5개국과 흑해연안의 아제르바이잔(Azerbaijan)이다.

이중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는 우즈베크스탄으로서 총인구는 1천4백만명이고 그중 70%가 무슬림이다.

카자흐스탄에서도 인구의 50%가 무슬림이며 약 8백27만명에 이른다. 그 다음으로는 아제르바이잔(5백50만명), 타지크스탄(3백58만명), 투르크메니스탄(2백47만명), 키르기즈스탄(2백36만명)의 순서이다. 무슬림들의 밀집지역으로는 우즈베크스탄의 수도인 타시켄트에 207만명, 카흐스탄의 수도인 알마아타에 1백13만명이 살고 있다.

중앙아시아 6개국에는 약 6천만명이 살고 있는데 이중 약 70%정도인 4천만명이 무슬림이다. 무슬림들은 인접국가에도 많은 친척을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아프가니스탄에는 2백만명의 타지크족과 1백만명 이상의 우즈베크족이 살고 있다. 이란에는 40만명의 투르크멘족이 살고 있으며 중국에는 카자흐족과 키르기즈족이, 몽골에는 약 5만명의 카자흐족이 살고 있다.

따라서 중동의 영향은 중앙아시아 무슬림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보아온 인접국가의 무슬림에게도 영향을 미칠수 있다.

이처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그동안 그들을 지배 하였던 슬라브민족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의 영향을 벗어나면서 중동의 영향권으로 편입되고 있다. 1989년부터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공용어를 러시아어에서 현지어로 바꾸었으며, 종교적 활동도 왕성해졌다. 모스크의 숫자가 페레스트로이카 이전에는 160개이었는데 현재는 5천개 이상으로 늘어난 것을 보면 종교의 부흥이 얼마나 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 4. 이슬람 경제권의 구상

이 지역에 있는 기존의 경제블럭을 보면 중동에는 걸프만안조정회의(GCC), 아랍조정회의(ACC), 아랍마그레브연합(AMU) 등 중동권의 아랍국가들간의 경제블럭이 있다. 비아랍권 중동에는 미국·이스라엘의 자유무역협정(FTA)와 터키, 이란, 파키스탄 간에 있는 경제협력기구(ECO)가 있다. 그런데 ECO는 최근에 중앙아시아 5개국과 아프카니스탄, 아제르바이잔을 합하여 10개국으로 확대되었다(표1 참조).

또 1992년 2월에 이란과 터키가 경쟁적으로 지역 경제블럭을 창설하였다. 터키는 러시아를 포함하여 흑해 주변국들과 「흑해연안경제협력지대」를 창설하였고, 이란은 며칠늦게 카스피해를 중심으로 「카스피해연안경제협력지대」를 창설하였다.

이로써 중앙아시아와 중동의 접경지역에는 기존의 ECO와 더불어 3개의 경제블럭이 존재하게 되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중앙아시아이슬람경제공동체”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CIS 국가들이 「CIS 경제동맹」의 창설을 논의하고 있어서 경제블럭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지만, 어느 하나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경제공동체건설에서 이란과 터키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지역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때문이다. 특히 종교적인 갈등에서 이슬람혁명의

파급을 우려하기 때문에 걸프만안의 온건왕정국들도 이란의 영향을 견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우디와 오만이 가장 적극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경제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그 배경을 가늠해 볼 수 있다.

### Ⅲ. 中央아시아의 석유산업

#### 1. 석유산업의 현황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6개국은 모두 산유국이다. 이 중에서 석유개발이 가장 빨리 시작된 곳은 아제르바이잔이며 수도인 바쿠(Baku)에서 1925년부터 시작되었다. 1870년대에는 석유개발에 대한 정부의 독점체제를 폐지하고 민간참여가 허용되었다.

1870년대를 통하여 바쿠지역 유전개발에 크게 기여한 사람은 노벨상으로 널리 알려진 노벨형제이다. 노벨형제는 유전, 파이프라인, 유조선, 정유공장, 자체철도, 소매망등을 보유하여 당시 바쿠의 석유 황제라고 불리었다.

1917년에 러시아혁명의 여파로 외국자본이 철수하기 시작하여 1918년에는 전석유산업이 국유화되었으며, 1920년에는 거의 모든 외국자본이 철수하였다.

그후 1985년에 시작된 페레스트로이카에 의하여 사유재산권이 인정되기 시작하였으며 1987년 1월 13일에야 외국투자자들이 소련경제에 참여할 수 있

ECO 회원국 경제현황

<표-1>

	G N P (1989)	인구(만명, 1990)	주요 산업
터 키	773억달러	5869	철광석, 밀, 면직물
이 란	976억달러	5461	석유, 천연가스
파키스탄	394억달러	1120	석탄, 석유, 쌀, 무명
아프가니스탄	63억달러	1612	과일, 견과류, 카페인
카자흐스탄	280억루블	1669	석탄, 석유, 천연가스
우즈베크	220억루블	2032	비철금속, 면화
키르기즈	53억루블	437	비철금속, 공작기계
타지크	50억루블	525	석유, 천연가스, 면화
투르크멘	51억루블	362	천연가스, 면화
아제르바이잔	117억루블	713	석유, 천연가스, 면화

<註> CIS의 GNP는 서비스산업을 뺀 年産國民所得임.

게되었다. 소련이 해체되면서 외국투자자들은 모스크바보다는 개별공화국을 상대로 투자의 대상지역이 바뀌게 되었다.

CIS에서 석유생산은 러시아를 비롯 10여개국에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생산량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곳은 러시아이고(전체생산량의 80%이상), 제2위가 카자흐스탄(4.2%), 제3위가 아제르바이잔(2.3%)이다.

CIS 회원국들은 에너지 자립면에서 러시아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나라는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정도이다. 이같은 에너지상황 때문에 CIS에 동참하기로 되었는데 약속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마찰을 빚고 있다.

## 2. CIS의 석유산업구조

원래 소련의 석유생산은 국내소비를 목적으로 성

장하여 왔다. 소련경제 자체가 계획경제체제이므로 중앙집권적이어서 중앙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유연성이 결여된 경제운영구조이었다. 이같은 상황은 석유산업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우랄, 우크라이나, 몰다비아를 중심으로 석유정제기지가 건설되었으며 그나마 수출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다.

소련의 에너지공급구조는 모두 중앙의 계획에 따라야 하였으며,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상호 의존관계를 촉진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카자흐에서 생산된 원유는 중앙의 배급센터에 운송한 후에 각지로 다시 재운송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유생산을 충분히 하고도 추운 겨울을 지내는 것이 통례이었다.

현재 독립국가들이 에너지 자율권을 갖고 있다기 보다는 구조적으로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중앙아시아 산유국에 의존하는 바가 역시 크

<표-2>

구소련 회교 공화국의 석유 매장량

(단위 : 10억배럴)

공 화 국	1991 생 산	확인 매장량	매장량/생산비율	추정매장량 추가
아제르바이잔	0.089	1.2	13/1	4
카자흐스탄	0.179	3.3	18/1	12
투르크메니스탄	0.036	1.4	39/1	3
우즈베크스탄	0.020	0.3	15/1	2
키르키즈	0.001	0.3	300/1	1
타지크스탄	0.001	0.3	300/1	1
계	0.326	6.8	21/1	23
러 시 아	3.365	50.0	15/1	99
O P E C				
사우디아라비아	2.999	260.0	87/1	41
이 라 크	0.102	100.0	980/1	45
이 란	1.220	92.8	76/1	22
베네수엘라	0.854	59.1	69/1	20
쿠웨이트	0.070	96.5	1,379/1	3
U. A. E.	0.874	56.2	64/1	7
리비아	0.548	22.8	42/1	8
나이지리아	0.678	17.9	26/1	9
인도네시아	0.523	6.6	13/1	10
알제리	0.291	9.2	32/1	2
카타르	0.142	3.7	26/1	2
에콰도르	0.107	1.6	15/1	3
계	8.408	726.4	86/1	172

<자료> Oil & Gas Journal, 1993. 1. 4

다. 원유가공이나 수송망등에 대해서는 러시아도 각 독립국가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다시말해 러시아는 구소련 생산량의 80%를 담당하지만 정제설비능력은 66%에 불과했다. 이는 소련 정부가 소비지 중심의 정유공장 건설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석유정제와 수출을 CIS 국가에서 하든지 발트해, 걸프지역, 텍사스까지 원유를 수출하거나 그곳에서 정제를 하여야 한다. 이처럼 러시아는 에너지 공급면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지만, 구소련 하에서의 중앙집중식 유통구조, 사회주의 분업적인 생산, 분배, 소비구조 때문에 러시아도 CIS,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대한 석유의존도가 높은 것이다.

#### IV. 중동과 中央아시아의 석유협력

중앙아시아 6개 이슬람국가들의 석유매장량은 <표-2>에서 보듯이 구소련 전체 매장량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1년도 석유생산량은 전체의 9%를 차지하고 있다. 추정매장량(유전확장과 미발견 매장량추가)을 보면 이나라들은 러시아 석유자원의 1/4수준이다.

2백30억배럴로 추정되는 잔존가체매장량중 절반 이상(1백20억 배럴)은 카자흐스탄에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자원보유를 바탕으로 OPEC(석유수출국기구)에 가입할 것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연말에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은 OPEC에 가입할 의사를 표명한바 있다. 또한 CIS 국가들은 기존의 에너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CIS-OPEC를 결성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외화획득을 위하여 기존의 석유수출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수송의 비효율성과 사용자 부담의 증가 때문에 마찰이 자주 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터키와 이란이 자국경유 파이프라인 건설계획을 가지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파이프라인 건설계획은 타당성이 있지만 실제로는 자금조달이 가장 큰 애로사항인 것이다.

이런점에서 이란은 터키보다는 건설자금 제공면에서 일단 우위에 있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국한된것이 아니고 일단 건설자금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석유협력을 연계시키기 위해 걸프만안 국가들은 종교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다시 말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이란의 시아파측에 접근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순례비용을 부담하고 오만은 석유개발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 V. 맺는말

소련의 붕괴와 걸프전의 종식은 중동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새로운 국제관계의 성립을 구상하게 만들었다. 중앙아시아와 중동국가들 간에는 종교와 역사, 문화면에서 동질적인 국가들이다. 아울러 석유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유사한 국제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앙아시아를 둘러싸고 여러가지 경제블럭을 구상하고 있는 그 의미는 이란과 터키가 러시아의 영향이 쇠잔한 틈을 이용하여 지역패권을 추구하고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터키와 이란뿐만 아니라 걸프만안 국가들도 종교의 동질성과 석유개발의 협력이란 면에서 적극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CIS 국가들과 러시아와의 기존의 에너지 협력문제를 강화시키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중동과의 에너지 협력문제 특히 이란과 터키와의 협력문제는 다양한 프로젝트의 제시와 더불어 구체적으로 검토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어쨌던 세계질서의 재편과정에서 중동은 중앙아시아 쪽으로 팽창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6개 산유국들의 석유협력도 기존의 러시아와 CIS 국가들과의 협력을 포함하여 중동국가들과의 협력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의 석유자원문제는 CIS 체제속에서의 분석은 물론 팽창되는 중동의 영향권에 포함시켜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